

다니엘 43 강

다니엘서 11 장 18 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 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흠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언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앞으로 성경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임할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이라든가 이 모든 말씀이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거지요. 뭐 그당시에 시리아나 이집트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1 장 말씀이 이렇게 긴 것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 절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다] 그러한 것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입니다. 그 안티오쿠스가 강했지만 로마와의 전쟁에서 1 차적으로 패배했죠. 그런데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아버지의 편을 안들고 남편 이집트 왕의 편을

들어서 그가 낙심하게 됐죠. 로마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이겨 불라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하면 300 척이라는 전함을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로마가 그때 자배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 초기에 안티오쿠스는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라는 예언하신 대로 사이프러스 시실리아 말타 이런 섬들을 정벌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죠. 그러나 결국 B.C190 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의 한 통치자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Scipio Asiaticus)에게 패망한 채 다시 회군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안티오쿠스는 안티옥에서 평화의 사절을 보내 가지고 로마에게 화친을 제안하게 됐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평화 협정을 제안했죠. 평화 협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댓가는 치뤄야죠. 패배국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죠. 그래서 유럽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했고 유럽과 접해있는 여러 지방의 영토를 내줘야 했고 심지어는 2550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그리고 앞으로 12 년 동안 매년 천달란트씩의 조공을 받쳐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면 결국 그렇게 바치는게 있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죠. 19 절 보면 **[그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수개월 뒤에 전쟁 배상금과 조공으로 바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방의 지방 도시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원에 있는 것까지도 무리하게 수탈을 하니 백성들이 막 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티오쿠스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그렇게 이루어진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듣게되면 나중에 12 장에 가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0 절 보면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죠. 아버지가 세금을 부과하다 죽었던 말예요.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이러한 세금과 전쟁 배상금과 조공을 다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큰 짐을 떠맡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만 왕은 아니죠? 고통스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오명을 계속 남기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거죠. 그가 12 년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얼마 안되어

결국은 그도 독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도 세금이 너무 중하니까 안견어들일 수 없잖아요. 로마에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안 바치면 또 쳐들어 올텐데. 그래 가지고 사면초과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자에 대해서 한가지 살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서들이 기록이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11 장에 들어있는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a raiser of taxes 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 장 1 절에 보면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조세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세등록은 유대인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시점과 같이 했다는것, 이게 우연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으로 가니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갔다.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눅 2;1~6 절). 이 세금을 거둬 들인 자로 시저 아우구스토가 나오죠? 즉 로마 황제죠? 로마는 바벨론의 모형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온 세상이 조세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판 다른 번개된 성경들은 인구조사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인구조사. tax 라는게 x 가 나오죠? 그래서 엑스맨 이라는 영화도 나오죠? x 라는건 누군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도 뭐라고 그래요? x 마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대신에 x 를 붙인다고요. x 라는건 깊은 뜻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낼 때 x 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깊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x 맨 이런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 문자가 x 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가 나왔다. 이걸 볼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여기에 또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시리아 왕이 세금을 거뒀지만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자가 나타났다고 할 때는 그 후 수백년 후에 로마의 시저가 또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지않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압제자로 바꾸어 놔어요. 압제자. 그렇게 성경을 바꾸어 놔도 사람들이 뭐 전혀 모르죠.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압제자든 세금을 거두는 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21 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평화롭게 와서 왕국을 얻는다고요. New world order 가 뭐죠? 평화를 주장하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왕국을 다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안티오쿠스의 아들이 독살을 당한 뒤에 시리아 황제 자리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앉게 됐어요. 안티오쿠스의 둘째 아들이 앉게 됐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왕통이 아니죠? 첫째 아들의 아들, 자기의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찬탈한거죠. 옛날 조선의 수양대군처럼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나왔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비정상적인 성격이 있었고 아주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대신 담력과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비열한 거죠? 비열한 사람들이 대게 보면 능력도 담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사하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화롭게 결국은 술책으로 자기 조카를 밀어내고 왕국을 얻었습니다. 21 절에 나와 있죠? 또 24 절 보니까 평화롭게~ 온다고 되었고 또 평화를 꾸미는 그 음모의 댓가는 술책이다. 술책을 갖지 않으면, 평화를 가지고 술책으로 말미암아, 술책은 말이죠 아침이라고 썼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침을 하면 우리 눈이 잠깐 멀어요. 그래서 아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욕기 17 장 보면 **[자기 친구들에게 아침하여 말하는 자는 그의 자식들의 눈마저도 멀게 될 것이라.]** 잠언에 보면 아침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그랬죠. 결국 술책 다시말해서 아침의 댓가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 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렸거든요.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환란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한쪽 눈이 먼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오른쪽 눈이 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먼거는 역사만 보지 미래를 못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한쪽 눈이 멀어요. 역사만 보지 미래는 못봐요. 이게 이렇게 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45 절까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다가 12 장에 가가지고 이제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에파페네스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가운데 한 인물이다. 물론 느부갓네살 산헤립 알렉산더 시저... 등등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가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렸으니깐. 돼지가 얼마나 부정한 동물입니까?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이겨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만 적용하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죠. 반면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영적인 적용을 소홀하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 첫째는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둘째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대개 교리죠? 우리에게는? 지금은 신약시대이니깐. 그러나 그 교리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만 되는 교훈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죄들을 용서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탐내지 않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CD를 훔쳤는데 그 사람이 그러드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했냐고. 그게 안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안됐으면 내가 죄지면 주님이 또 오셔 가지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을 듣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세상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죄를 도말 안했으면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깐 그럼 내가 막 죄를 짓고 살까? 그럴 수없느니라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런 분들이 성령이 없으니깐 자유가 없는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깐. 요즘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물어 봤대요. 그러면 살인하는 죄하고 간음하는 죄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예수의 피가 제한적이다. 예수님이 피의 능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죄하고 어떤것이 더 크냐? 아 살인하고 간음하는게 더 크대요. 이 정도로 지금 된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했고 마음으로만 이미 미워해도 살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다 안고 죽으신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찢어지신 거죠. 심장이 찢려 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신 거죠. 심장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신학교에서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런가하면 아 예수도 믿어야 하고 내가 선행도 해야지 구원받는게

아니냐? 이걸 뭐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화가나고 원통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교리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랬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 자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 그랬어요. 아 우리는 아직도 불경건해요. 이걸 믿어야만 예수 믿는 거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죠. 말이 안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 피를 믿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그냥 받아 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받아 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봐야 하는데 내 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그러겠지 했는데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물었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네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러니까 참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의 적용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들을 다 실종하게 되고 진리가 가려지고 실종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암흑 속에서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요.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요. 교리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공부 안한 사람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성경적인 지리를 의도적으로 가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을 기피하고 문자적으로 안풀고 다 영적으로 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술책에 능하고 아침에 능한 사람인데 이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만 적용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와 천국의 환상만이 사람들의 환영 속에 뜬 구름처럼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 좋을때만 확실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없어지고. 어느 날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걸 누가 바꿔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이 들어가요?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들어가면 생명이 삼켜 버려요. 마치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오면 빛이 어둠을 삼켜 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죽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번
 주일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갈 거예요.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자 22,23 절
 보세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아들 에피파네스라고 술책으로 왕권을
 찬탈한 그 왕은 자기 앞에서 넘쳐흐르게 세력을 과시하는 적들을 결국은 무찌르게 되서 넘쳐나는 군대를
 패망시키게 했고 언약의 통치자 이거는 유대인 대제사장 오나스 3 세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까지도
 몰아냈습니다. 대제사장까지 몰아냈어요. 그 뒤에 그는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들과 연맹 관계를 파기했어요.
 연맹을 맺어 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이겼는데 연맹을 파기하고 로마에 접근해 가지고 아주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거짓되이 행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의 왕권을 로마로부터 인정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는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되었는데 그가 평화롭게 그 여세를 몰아 기름진 곳까지 가서 나쁜 짓을 자행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7 년 평화 협정을 맺고 3 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협정을 파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사람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4 절 보니까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흠을 것이며 도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자 이때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 하나 벗겨지는데 지금
 대환란의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나옵니다. 그는 평화롭게 군림해 가지고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에게 하지
 못할것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면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자행한다. 적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니까? 유대인들이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될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될수 없어요. 유대인의 피가
 없으면 안되요.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조상들의 하나님,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지구상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유대인들밖에 없죠? 유대인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을 지칭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흘릴 것이며 또 그가 얼마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얼마 동안 이것을 영어로 for a time, 한 때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때가 1년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삼년 반이죠? 얼마 동안은 1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음모를 미리 꾸민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한다. 적그리스도가 후 삼년 반에 바꾸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죠. 갑자기 하는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 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45 절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니엘선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중의 하나요 또 특별히 11 장은 앞으로 임할 대환란에 대한 예고요.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니 또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졸오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